

가장 좋고 완벽한 신체는 천연 그대로의 상태

미인의 기준은 변한다. 당나라 양귀비는 가슴 큰 뚱보였고, 춘추시대 월나라의 미녀서시는 손바닥에 올려 놓을 수 있을 만큼 호리호리했다. 얼마 전까지 미인은 마르고 가냘퍼야 했으나 요즘은 날씬하면서도 건강한 미인을 최고로 친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남한에서는 얼굴이 가름해야 미인이고 북한에서는 달덩이 같아야 한다.

이처럼 미인은 시대에 따라 또 사회 여건에 따라 기준이 변한다. 하물며 치장하는 방식이야 말할 것도 없다. 내가 아는 어떤 성형외과 의사는 미인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으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의 말인즉, 늘 변화하는 미인의 기준 때문에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고 돈도 벌지만 그래서 또 괴로운 것은 자신이 해 놓은 일을 또 고치는, 즉 수습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귀찮음을 지나 비감하기까지 하다는 것이다.

한때 눈썹 문신이 유행했을 때 그 형태가 유행이라 또 그렇게 만드느라 바쁠 뿐만 아니라 애써 만든 문신을 지우느라 만들 때의 몇배에 이르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그것에만 멈추겠는가. 예전에는 멀쩡한 편도섬과 맹장을 잘라내는 거싱 여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

다.

한때 눈썹 문신이 유행했을 때 그 형태가 처음에는 반달 같은 눈썹이어서 반원을 만드느라 애를 썼고, 또 다음은 브룩실즈 처럼 술이 많은 일자여서 그렇게 만드느라 바빴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은 자연스런 형태가 유행이라 또 그렇게 만드느라 바쁠 뿐만 아니라 애써 만든 문신을 지우느라 만들 때의 몇 배에 이르는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그것에만 멈추겠는가. 예전에는 멀쩡한 편도선과 맹장을 잘라내는 것이 여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기를 낳자마자 남자 아기의 포경 수술과 편도선을 수술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가. 맹장은 인체 면역 시스템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은 서서 다니는 관계로, 아래를 향해 있는 소장에서 위로 향해 있는 대장으로 음식물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인체 물리 역학상 반드시 맹장의 구조적인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이 부여한 인간 신체의 진실

뱃속에 맹장이 없으면 장의 물리적 작용에 무리가 생겨 장내 음전압 수치가 높아지고 장의 연동 작용에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장 표면에 붙어 있는 찌꺼기가 잘 배설되지 않고 장 운동의 리듬이 혼란해지고 장내 체적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각종 장질환은 물론 영양 흡수에 중대한 결손과 부조화를 초래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0조의 세포에 식수와 미네랄을 대고 있는 대장에 결정높아지고 장의 연동 작용에 이상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장 표면에 붙어 있는 찌꺼기가 잘 배설되지 않고 장 운동의 리듬이 혼란해지고 장내 체적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각종 장질환은 물론 영양 흡수에 중대한 결손과 부조화를 초래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0조의 세포에 식수와 미네랄을 대고 있는 대장에 결정적 문제가 생기면 곧 모든 세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10년 전 암과학자들이 맹장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암과 직장암 발병률을 조사한 결과 맹장 있는 사람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상이 없는 데도 맹장제거 수술을 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편도선 제거 수술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30년 전 뉴욕타임스 칼럼을 보면 편도선은 신이 주신 것이니 있는 것이 좋겠지만, 자주 붓고 고열이 나는 사람은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임상 역학 조사에 의하면 제거해도 그 류유증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암과학자들은 10년 전 편도선을 제거한 사람은 갑상선 종양이나 폐 종양, 직장 종양에 노출될 확률이 크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불문율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유방 성형에 실리콘을 주입하는 방법이 가장 부작용이 적고 촉감도 좋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요즘은 그 부작용이 극심하여 회수되고 보상되는 경우에까지 이르고 있다.

치아도 한때는 멀쩡한 이를 몽땅 빼고 보기 좋은 의치로 전부 바꾸는 것이 유행이 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나니 껌도 마음대로 씹을 수 없고 맛도 알 수 없는 문제 외에도 의치와 혀암(舌癌)의 상관 관계가 '가설 단계'를 넘어 서자 요즘은 본래의 치아 보존에 역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치매 연구에서 세계 최첨단인 입센 제단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40대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다는 20년 간의 역학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자 현명한 여성들은 고통이 심해도 자연분만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좌골신경통 치료도 수술에 의한 방법보다는 물리치료와 운동 그리고 한방치료로 선회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한 일이라 하겠다.

진리가 진리를 뒤집고 나온 것이 의과학이고 보면 의과학에서 영원한 진리는 신이 부여한 **천연 그대로의 상태**가 가장 좋고 완벽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뜨개본 건강상식』에서

